

채소바구미(딱정벌레목 : 바구미과)의 발생 및 분포지역

한만중, 권기면, 최준열, 이관석, 김항용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해충과

채소바구미(딱정벌레목 : 바구미과)는 1988년 경남 김해에서 최초로 발견된 해충으로 1996년에는 완주, 무안, 광주, 서천, 부여에서, 97년에는 나주에서, 98년에는 보성, 북제주에서, 2000년에는 서귀포에서 발생기록이 있으며, 기주작물로는 양배추, 배추, 무 등이 알려져 있다.

채소바구미 발생 및 분포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2001년~2003년까지 3년 동안 기주식물인 십자화과 채소와 망초류를 대상으로 전국의 115개시군 686개 포장 및 지점을 조사한 결과, 수원 등 79개시군 332개 포장 또는 지점에서 발생이 확인되었다. 분포지역은 경기 동북부 지역, 강원도 영서지역, 충북 및 경북의 북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발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주식물로는 십자화과인 배추, 무, 양배추, 유채와 시금치, 망초류, 털질경이에서 발생이 확인되었으나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채소작물에서는 발생이 극히 적어 광주, 나주, 북제주, 마산에서만 확인되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망초류에서 발생이 확인되었다.

채소바구미는 1년에 1회 발생하며, 노지에서는 성충으로 월동하는 해충으로 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충의 발생시기는 3월~5월경으로 이 시기에는 주 기주 작물인 십자화과 채소가 많지 않아 피해가 적으며, 또한 유충이 살충제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작물재배 기간중에 살충제가 살포되는 포장에서는 피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